

社說

73주기 여순사건 추모행사가 더 각별한 이유

여수·순천 10·19사건 73주년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은 전역에 목념 사이렌이 울리는 것으로 시작했다.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돼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맞은 올해 행사는 시민과 관련 단체의 높은 관심 속에 치러졌다.

제주4·3과 함께 해방 이후 국가 폭력에 의한 대표적 대규모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그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안은 제16대 국회 이후 수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제21대 국회에서야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조와 국민의 간절한 열망에 힘입어 결실을 맺었다.

어느 해보다 더 각별한 의미를 갖는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으나, 김부겸 국무총리가 영상으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풀어야 할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 내년 출범하는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를 중심으로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해 위로를 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유족 지원과 추모사업의 내실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역을 해소하고, 전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하기도 했다.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이제부터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완전한 명예회복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특히,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문제부터 발목을 잡고 있다. 일부 보수세력에 의한 왜곡·편향 시도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세부 시행령 마련 등 후속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통한의 세월, 70여년이 무수하게 흘렀다.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잔혹한 폭력의 역사는 바로잡아야 한다. 과거의 일로 치부돼선 안된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며 그에 따른 배상까지 속도를 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인권과 정의를 세우는 작업이다. 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한 이정표이기도 하다. 결코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휴업 신고 광주 마을버스 재정지원 속고해야

광주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적자를 지속해오다 멈추게 됐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승객 감소가 원인으로 5개 업체 가운데 4곳이 다음달 10일부터 내년 2월까지 휴업하겠다고 최근 광주시에 신고했다고 한다. 시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실질 효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에 신고된 마을버스는 모두 72대로 예비차량 6대, 기존 휴업 또는 미운행 16대를 빼면 현재 50대가 운행하고 있다. 예정대로 휴업에 들어가면 36대가 운영을 중단해 광산구 일대를 오가는 1개 업체, 14대만 남는다. 업체는 운송 수입이 2019년 57억8천여만원에서 코로나가 유행한 지난해에는 42억8천여만원으로 26%나 줄었다고 경영상의 고충을 호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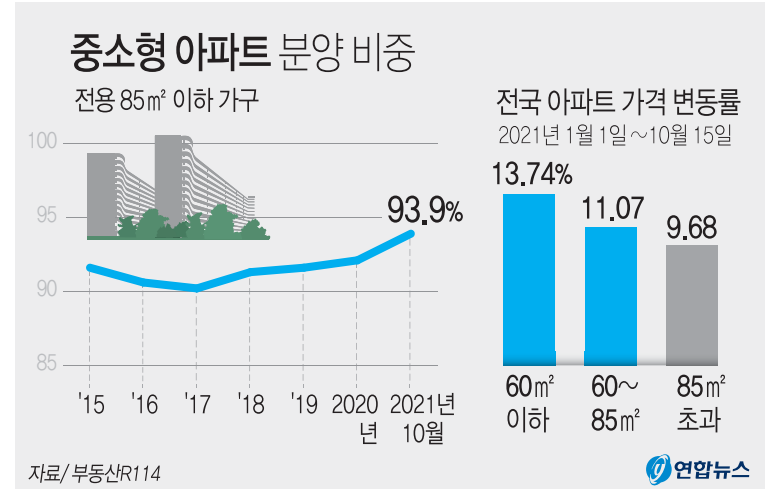
광주시의 해법도 쉽지는 않다. 나름의 지원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예산인 만큼 용역(표준운송원가 산정),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등 최소한의 필수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선을 긋고 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은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대해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서울과 울산시의 사례를 들었다.

당장 주민들은 일상의 불편을 감내해야 할 판이다. 광주시가 마을버스의 조속한 지원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하는 까닭이다. 관련 예산 편성 및 용역업체 선정, 시의회 동의, 용역 실시, 지원방안 마련 등의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야 하는 것이다. 차차구와 업체 간 지속적인 협의에도 나서야 한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가적 재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지만, 더욱 힘들어 하는 경우도 많다. 동네 주민들의 교통수단인 마을버스가 멈춰서는 사정도 다르지 않다. 운행 중단은 막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적극 대응해주길 바란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재정지원 규모가 해마다 누적돼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마을버스 문제를 쉽게 볼 일이 아니다. 보다 현명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그래픽 뉴스

올해 전국 분양아파트 10채 중 9채 이상이 중소형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분양된 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의 가구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현재까지 전국 분양 아파트 총 23만14천737가구 가운데 전용 85㎡ 이하 가구 비중이 93.9% (22만4527가구)에 달했다.

이는 부동산R114가 관련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중소형 아파트 분양 비중은 2015년부터 7년째 90%를 웃돌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4년째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부동산R114는 "인구구조 등 주거 트렌드의 변화, 소득 대비 높은 집값, 개선된 공간 활용성 등으로 중소형 주택수요가 늘어나면서 분양 시장에서도 중소형 공급이 주를 이루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전용 85㎡ 이하 분양가구 비중은 수도권(95.2%)과 지방(92.7%) 모두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면적 구간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올해 10월까지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전용 60㎡ 이하 가구 비중은 44.0%로, 지방(18.5%)에 비해 높았다. 반면 전용 60~85㎡ 이하 구간의 가구 비중은 지방(74.2%)이 수도권(51.2%)보다 높았다.

부동산R114는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높은 집값과 대출 규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1·2인 가구 증가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중소형 선호가 이어지는 추세로, 중소형 집중 현상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신은 광주에 살고 싶습니까?

의정칼럼



정순애
광주시의회 부의장

당신은 어떤 도시에 살고 싶습니까. 자연환경이 좋은 곳, 문화·체육 시설이 많아 여가활동을 즐기기에 편리한 곳, 병원, 마트 등 각종 편의 시설이 많은 곳, 교통이 편리하고 아이 교육여건이 좋은 곳 등 사람마다 원하는 정주 환경이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다.

살기 좋은 곳을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살기 좋은 곳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은 비슷할 것이다. 그럼 광주시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일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수도권 의 직장인에게 연봉을 더 준다고 해도 광주로 발령받는 것을 모두들 거부한다고 한다. 특히 젊은 직원들에게서 이런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노점도시 광주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노점'은 재미가 없다는 뜻의 신조어로 광주는 재미가 없는 도시라는 이야기이다. 아마도 놀거리가 타 도시에 비해 적고 유명한

관광지 특산물도 많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20년 국민 여행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여행 방문지에서 광주는 1.3%에 그쳐 세종(1.1%)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놀거리·볼거리·즐길거리 없다

자신의 소득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에도 타인의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이 급격히 올라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을 가리키는 "벼락거지"라는 신조어처럼 광주는 정체된 채 "벼락낙후"되고 있다. 광주는 23년 전 신세계백화점, 유스퀘어와 터미널을 만들었던 시대에 멈춰서 있다는 생각이 든다.

23년간 다른 광역시들은 코스트코, 이케아,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등 새로운 쇼핑물들과 랜드마크급 건물 및 호텔들이 들어섰지만 광주는 전혀 변화가 없다. 광주시가 거부했던 신세계백화점 증축도 대전으로 넘어가 대전 아트 앤 사이언스 점이 문을 열자 대전 시민들은 벌써부터 '노점도시 대전'의 탈을 벗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 부산 롯데월드 매직 포레스트, 춘천 레고랜드, 화성 국제테마

파크 등 타 지역은 상업시설과 호텔 등이 어우러져 있는 복합관광단지를 개발하고 있지만 광주 어드벤처 개발은 10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광주 소매 소비의 35%가 광주·전남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놀거리·볼거리·즐길거리는 '도시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지만 지역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시민들의 욕구를 해소해 주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노점' 도시이미지 대전환 시급

국민들이 느끼는 광주의 가장 큰 이미지는 무거움이라고 한다.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만들어 낸 광주의 자랑거리이다. 하지만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 때문에 광주는 밝고 활기찬 이미지가 아닌 무거운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광주시가 관광재단까지 설립해 가면서 예술관광도시의 이미지로 탈바꿈을 꾀하고 있지만 현실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문화 향유 기회가 많이 부족하고 광주의 이미지 변화도 미비하다.

물론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한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노점도시를 광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지시

민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무거운 이미지의 광주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는 광주를 등지고 다른 도시로 떠나가는 요인이 되고 있다.

'광주다움'이란 무엇일까? 문화도시, 인권도시, 예향, 의향, 미향 등 광주가 가지고 있는 내재화 된 가치를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광주다움이 실질적인 광주의 변화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광주다움은 기본적으로 내재한 채, 외부에 투영될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가 필요하다.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도시이미지를 내세워 사람들을 광주로 오게 만들 수 있는 밝고 긍정적 에너지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긍정에너지로 사람들이 찾고 싶고,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자녀들이 광주에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광주를 변화시켜 나가야 할 때이다. 광주시는 멈춰있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광주를 변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기고



이달주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따뜻한 소통의 공간! 광주장애인회관 건립에 부처

장애인단체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시적인 교류, 안전한 여가공간, 지역 내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편의 증진과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해 치료 후 지역사회로의 복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장애 영역별 취업, 의료, 인적 인프라 구축 등 생활의 종합안내 역할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절실했다.

그동안 장애인단체들이 사무실과 단체 유지비 마련을 위해 수익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에 사용할 에너지가 분산되어 장애인 복지향상에 중요한 공간적 역할을 해 줄 장애인회관 건립을 요청했고 시에서는 광산구 신창동 일원 부지에 지하1층·지상4층의 연면적 8천300㎡ 규모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202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다.

장애인 회관은 교육, 문화, 체육 활동 및 각종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목적 체육관,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회의실, 재활치료실, 다목적실 등이 설치되고 워킹업 공간과 찾아가는 안내시인 표준시스템, 신체적 조건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무장애 공간 설계,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제로 에너지 인증,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여 만들어지고 있다.

서울 이룸센터의 경험을 토대로 정리해낸 장애인회관 운영의 이점으로는 정보의 수집과 제공, 정부와

소통에서의 가교 역할, 당사자의 의견 조율, 서로 역량을 합하여 연대가 쉬워지고 상호 교육으로 역량이 강화되며 복지전달 매개자로서 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

장애인회관이 건립되면 장애인 단체의 사무공간의 기능과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 뿐만 아니라 BF(Barrier Free)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 장애인이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중심의 공간이 창출되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참여와 소통, 그리고 학습으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종합적이고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나 사무소 등이 함께 입주함으로써 집적화되어 장애인 단체 간의 상호협력과 소통, 더 나아가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교환을 통해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되 정부나 지자체 및 관련 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것이 없는 무장애 공간 설계, 건축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장애에 대한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정부나 지자체 등에 대해 장애인의 권리와 권익을 주장할 수가 있다.

장애인복지에서 당사자의 참여

와 재가 장애인의 자립이 강조되고 있다. 전문가가 개입하여 재할해야 하는 것이 20%라면, 80%의 장애인은 동료상담이나 문화, 지역사회의 참여로서 전문가의 개입 없이도 장애를 수용하고 사회복귀와 자립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지역사회 중심 복지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장애인의 수요자 맞춤형 복지인 프라인 장애인회관이 건립되면 평생교육과 문화공간으로써 훌륭한 복지모델이 될 수 있고 장애인에 관한 정보 교류의 장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과 복지 증진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장애에 대한 편향된 인식의 벽을 허물고 올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장애는 다소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뿐이고 우리 모두는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장애로 인한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즉 장애가 있으신 분은 당당히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비장애인은 도움 의무가 있다고 생각된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도시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우리 장애인이 행복해야 광주가 행복하며 장애인이 마음껏 꿈을 꾸며 희망을 만들어 갈 때 광주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다.

독자투고

물카범죄 '찰칵'이 '찰컹'된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물카 범죄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 중 물카사건이 3위(18.4%)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게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 장소에서의 범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물카카메라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인 카메라 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된다. 그리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이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

대상이 되어 최대 20년동안 국가로부터 신상정보를 관리 받게 된다.

물카카메라는 단추, 명함지갑, 리모컨, 사위헤드 등 일상적이고 평범한 대부분의 물품에 설치할 수 있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가해자들은 수치심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들은 수치심으로 인해 피해자가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주저하지 말고 큰소리로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112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신고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성범죄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지름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문소희·보성경찰서 경무계)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아닌 의무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용품 '자동차'. 그러나 정작 운전자들의 대처요령 미숙과 소화기 구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귀중한 재산의 소실을 눈으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다.

자동차의 경우 엔진에서 열과 불꽃을 만들어 내고 인화성이 매우 높은 연료와 가연물을 싣고 다니며,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어 언제든지 화재가 발생하고 급속히 연소되는 특징이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과 온도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자동차 검용'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구매 당시 지시 압력계 바늘의 정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평상시 정상 작동이 잘 되도록 관리에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기에 필수용품이다. 평소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자동차 화재를 방지하고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차량 내부에 소화기를 비치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안재용·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8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정부 650-2030	사건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국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가) 일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